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도록 기회와 사다리 마련해야”



창립 46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청년 주거와 사회복지’를 주제로 개최됐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창립 46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청년 주거와 사회복지’를 주제로 청년층의 주거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주거복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기회와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 사회의 위기, 청년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2022년 아산재단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중 우수 연구자 3명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주제는 김미영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그들은 어디에 모여 사는가? 수도권 청년 빈곤층의 공간적 집중과 구성 변화’, 2주제는 박종훈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의 ‘청년 주거는 안녕한가요?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 3주제는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과 청년의 삶에 대한 연구: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경험을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참가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청년의 특성 고려한 주거 지원 정책 필요

김미영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도권 청년 빈곤 가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과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빈곤층 청년들의 거주지는 서울 서남권과 동북권, 인천, 부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고착되면 사회적 배제와 소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청년주택 공급과 입지선정 등에 있어 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종훈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의 주거 형태와 만족도 분석에 따른 주거 안정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지역의 일자리, 통근, 교육, 의료 등을 개선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도록 소득 맞춤형 주택정책 확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 위해서는 신혼 및 출산가구, 신혼부부, 1인 가구 순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참가자들이 함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심포지엄 주제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책 모색해야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대표되는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 실태와 청년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청년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지하·옥탑·고시원 거주 비율이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 거주 청년의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자신감이 낮아지고 삶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부정적 경험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소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전희정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청년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청년의 주거 문제는 사회 불평등, 부의 대물림 문제와 연관되므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글 편집부**